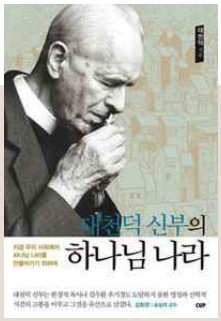

대천덕 신부의 하나님 나라

대천덕 지음 | 도서출판 CUP

이 책에서 대천덕 신부님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신앙과 삶?"
"믿음과 행함?"
"지식의 실천?"
"신학자들, 지식인들, 정신 차려라?"
책을 읽어 가며 책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대신부님의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다.

대신부님을 기리는 양승훈 원장의 첫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신부님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풀어 가셨다. 그런데 이야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을 강조하셨다. 그것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들을 제시하셨다. 성경도 우리 경제적인 일에 대하여 결코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강조하셨다. 그렇기에 대신부님은 교회에서 관습에 따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

"한국의 찬송가를 보면, 사회에 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정부와 사회, 가난한 사람, 사회적 갈등, 전쟁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을 찌르고 들어오는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주시곤 하셨다.

외모로 보면 매우 온유해 보이지만 성경의 진리는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던 대신부님은, 이 책에서 이러한 화법으로 말씀하신다. 그렇기에 이 책은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롤로그에서 대신부님은 "성경이 사회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는 책을 쓰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이 책이 이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셨다.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주님의 '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관심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미성숙한

개인의 인격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성령은
반드시 사회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며,
성화된 개인과 성화된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다.

신학의 위험으로부터 시작한다. 미성숙하다는 것은 세상을 본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시험이나 검증 없이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이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성숙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미성숙한 신학의 예로 성령을 무시한 채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만 강조하는 해방신학, 사회문제나 윤리 문제에 전혀 관심 없이 성령만 강조하는 편협한 신학, 세속적인 기쁨만 갈구하는 아편신학, 샤머니즘적인 복을 추구하는 기복 신학 등을 든다.

미성숙한 신학이 생기는 원인으로서 한국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예를 든다. 복음, 전도, 구속, 교통, 교회, 충만 등 교회에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숙한 신학이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 철저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돈도 많고 세력도 많은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대신부님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에 온전히 실현할 성숙한 신학을 위하여 기독교 교육을 제안한다. 서양과 동양 사회를 두루 섭렵한 대신부님의 경험에 기초하여 서양의 '진리'에 대한 개념과 동양의 '정', '사랑'에 대한 개념이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세기 복음은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권고를 선포하는 데에 실패하고 부분적인 것만을 주장하며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버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신부님은 만일 사회적인 복음과 성령 충만한 복음이 협력했다면, 세상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운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의에 대한 성경적인 제도가 이 지구에 널리 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분열된 교회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실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제2부 성경적 경제의 기초원리에서는 경제와 정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초 원리를 제시하면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희년경제론을 설파한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에만 치중하며, 물질적인 이야기는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물질을 구하되,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되, 자신의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경은 성령 충만과 함께 물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의 일부를 잘라 낸 것이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토지법으로 희년제도와 땅을

무르는 제도를 말씀하고 계신데, 신학자들은 영적인 것만 취급하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 가르침이 무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진리를 인식한 헨리 조지의 주장이 지주 등 기득권층의 방해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전율이 느껴질 만큼 생생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한다. 교회가 스스로 희년을 선포하고 초대교회 같이 모든 것을 통용하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세상의 궁핍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발적으로 희년을 지키는 방법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떠나기, 토지권 무르기, 구제은행, 토지신탁법인 운영 등을 들며, 미국의 앨라배마 주,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모샤브를 예로 들고 있다.

제3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약은 구제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반면, 신약에서는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 즉 믿는 자들로 구성된 가족을 이루어 가난의 문제를 가족 안에서 해결함으로써, 가난한 이웃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미가서 6장을 소개하고, 토지에 대하여 아일랜드의 문제점과 알래스카의 성공에 이은 실수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다.

대천덕 신부의 하나님 나라는 체계적인 논문 형식의 글이라기보다는, 강연체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희년제도를 중심으로 한 실천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신부의 신학적 기초는 해제를 쓴 김희권 교수의 글에 잘 요약되어 있다.

"신부님의 신학은 개인의 인격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성령은 반드시 사회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며, 성화된 개인과 성화된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학문의 주류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탐구에 그치며, 잘못하면 기득권층의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려 그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였다. 특히 얄팍하고 부분적인 지식에만 만족하고, 실천을 도외시하면서, 반쪽 신앙, 반쪽 학문 연구에 빠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지식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었다.

이 책은 의미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학자로서 정말 정신 차리고 학문에 임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다듬게 하는 책이었다. 신실한 동료 학자들, 정책담당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글 | 조성표

현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독학문연구회 회장,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세계관연구소를 맡고 있다. 전공은 재무회계이고,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 (CUP 2008), 『공학회계 (청람 2015)』를 저술하였다.